

[전체공지]

※ 교황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사제들의 삶의 방식)
 사제들이 겸소하고 겸손한 삶으로 가장 가난한 이들과 연대를 이루는 데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도록 기도합니다.

[잭슨빌]

- 7 월 첫금요일(7/5)은 저녁 8 시 미사와 성체현시와 강복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 7 월 7 일 미사후 오후 6 시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플로리다 한인 사제 협의회 주최로 각 본당 사제와 사목회장의 친교와 연수가 올란도 성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신부님과 사목회장님이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 지붕수리를 위한 건축헌금에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게인즈빌]

- 오늘 미사후 친교는 소셜홀에서 있겠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 타	총 계
게인즈빌	\$134	-	-	-	\$134
잭슨빌	\$281	\$500	-	-	\$781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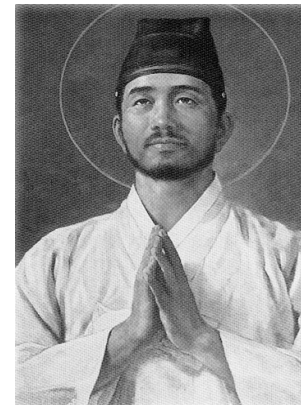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換)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송재민 하상바로로 (904) 226-7191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860) 906-6567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주님의 부르심과 부름받은 사람들의 자세를 알려 줍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고향인 갈릴래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접어드시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만합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런 문맥에서 주님을 따르는 문제를 꺼냅니다. 우리 마음이 내키고 환경이 좋을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주님께서는 결국 모든 이에게 거부당하고 버림받으신 분이며, 스스로 목숨을 바치시는 그 순간까지 홀로 그 길을 걸으신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어려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것도,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하느님 나라 선포의 긴박함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제자들로서는 그런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하고 포기할 것인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둘째,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에 묻힌 보물이나 진주의 비유에서처럼 주님과 하느님 나라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서 어떤 것도 그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 8. 찬미하여라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연중 제 13 주일 (교황 주일)

[제 1 독서] 열왕기 상권 19,16 ᄇ.19-21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나섰다.>

[화답송] 시편 16(15),1-2 ᄇ과 5.7-8.9-10.11(◎5 ᄇ)
◎주님, 당신은 제 뉘의 유산이시옵니까.

[제 2 독서] 갈라티아서 5,1.13-18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알렐루야.

[복음] 루카 9,51-62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6/29)	최건화 안젤라	천희제 레아	천송희 스텔라	-
	잭슨빌 (6/30)	윤미임 데레사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김정숙 켄마 렉시 베로니카
다 음 주	게인즈빌 (7/6)	고승희 엘리사벳	이명순 로사	이영순 프란체스카	-
	잭슨빌 (7/7)	윤미임 데레사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김정숙 켄마 렉시 베로니카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건
게인즈빌	522	475	285	847
잭슨빌	77	512	197	209